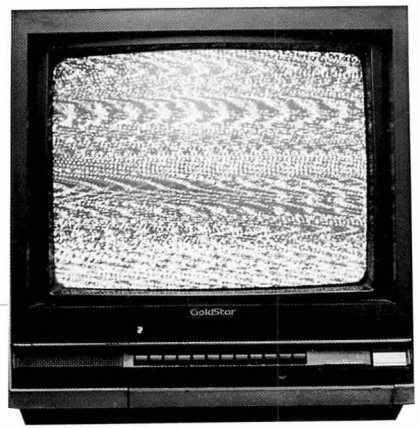


# 텔레비전은 아직도 '깨야' 하는 물건이다

나에게 텔레비전은 무엇인가

최영묵 |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



주변에 온통 텔레비전이 널려 있다. 거실에, 침실에, 연구실에, 인터넷 속의 방송국 사이트에, 심지어 이따금씩 이용하는 택시 안에까지 텔레비전이 한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전공이 방송이다 보니 학교나 이런저런 시민단체에서 주로 이야기하는 것도 방송이론이나 영상읽기 같은 것들이다. 이따금씩 '비평'이라는 이름으로 시 청소감을 써달라고 부탁받기도 한다. 텔레비전을 보고 텔레비전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이 내 삶의 중요한 일부가 됐다. 이렇게 숙명처럼 텔레비전과 더불어 살아온 지가 10년 이상 됐지만, 아직도 나에게 텔레비전이 무엇인지는 분명하지 않다.

## 텔레비전 보기를 업으로 삼는 괴로움

"텔레비전을 집에서 보면 되지 대학가서 보면 뭐 다른 게 있나?"

20여년 전 대학 신학과에 들어갔다고 하자 집안의 한 어른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대꾸할 말이 없어 그냥 침묵했던 것 같다. 지금도 내가 왜 방송에 관심을 갖게 됐고, 전공을 하고 대학원에 다녔는지 딱 부러지게 설명하기 어렵다. 텔레비전이 방에 있어서 열심히 보게 됐고, 그러다 보니 텔레비전을 '업'으로 삼게 됐다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다. 세월이 흘러 방송을 가르치는 교수가 된 후에도 비슷한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다.

"최 선생은 좋으시겠어요. 똑같이 텔레비전을 볼 텐데, 그걸 가지고 글도 쓰고 가르치기도 하고."

그렇게 보면 난 행복한 직업을 갖고 있는 셈이다. 사람들이 텔레비전을 보는 것은 가장 편한 휴식의 연장이다. 물론 내게도 어느 정도는 그렇다. 하지만 텔레비전은 그리 호락호락한 상대가 아니다. 특히 '바로 보기' 나 '화면깨기' 나 'TV읽기' 나 하는 명목으로 텔레비전을 보려고 하면 더욱 그렇다. '업'으로 텔레비전을 보는 일은 편안한 휴식이 아니라 무언가 따지고 꼬투리를 잡는 '잡무'가 돼버리기 때문이다. 모든 영상물은 대상을 매혹적으로 재연한다. 별다른 의문 없이 그 이미지의 바다에 빠지는 것이 자연스럽다. 문제는 그 '매혹'의 심연에서 허우적대는 한 분석이나 해석이 난망한 일이 돼버린다는 점이다. 텔레비전의 안과 밖, 껍질과 속살 사이를 길항하면서 갈등하고 분석하는 과정을 지나야만 나름대로 텔레비전 관련 글쓰기가 가능하다. 그런데 그 작업은 별로 행복한 일이 아니다.

## 동시대 문화의 단면 들여다볼 수 있는 매체

텔레비전이라는 물건이 내 기억 속에 처음 입력된 것은 초등학교 1학년 무렵이었다. 사람들이 마을 교회당에 모여 우주선의 달 착륙 장면을 보고 있었다. "어떻게 저걸 찍을 수 있었을까?" "텔레비전이라는 저 물건은 참으로 대단한 것이군!" 이런저런 생각들이 잔상으로 남아 있다. 그후로는 당시 인기 절정이었던 프로레슬링 경기를 보기 위해 마을 예비군 중대장 집에 몰려가곤 했던 것 같다. 김 일 선수나 여건부 선수가 안토니오 이노끼나 압둘라 부처 따위의 선수를 제압하는 것을 보는 일은 너무도 신나는 일이었다. 이후 언제인가 "프로레슬링은 쇼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텔레비전에 대한 환상도 점차 사라져버렸다.

텔레비전이 다시 특별한 존재로 등장한 것은 1990년대 중반이었다. 한 신문 방송주평 모임의 일원이 되고부터다. 그야말로 '전투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하! 여기. 오! 저기' 하면서 특정 화면이나 멘트를 잡아내 먹이로 삼았던 것 같다. 텔레비전 프로그램 가운데서도 뉴스나 보도, 다큐멘터리 등이 주요 비판 대상이 됐다. 1년 이상 허구한 날 텔레비전을 보며 지내다보니 눈도 아프고 정나미도 떨어지기 시작했다. 별반 달라지는 것도 없었다.

얼마 전 다시 텔레비전 비평을 시작한 것은 순전히 '망각의 힘'이다. 곧바로 후회했지만 도리가 없었다. 이전까지 경직된 눈으로만 보려던 마음이 약해지고 그저 보편적인 동시대 문화의 단면을 들여다본다는 편한 마음을 갖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이다. 텔레비전이 정보의 상자라기보다는 놀이상자라는 쪽에 더 무게를 두게 된 것이다. 그렇다고 "텔레비전은 가장 영향력 있는 보편적 미디어이기 때문에 품질 좋은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야 한다"는 생각이 달라진 것은 아니다. '귀신장난'이나 '너구리소동'에서 보듯이 텔레비전은 아직도 '깨야' 하는 물건이다. 모든 이미지를 게걸스럽게 먹어치우는 그 잡식성에다가 은밀한 소비로 유혹하고, 반성을 모르는 뻔뻔스러움을 생각하면 더욱 그렇다. ■

최영묵 교수는 현재 성공회대 신학과 교수로 재직중이며 문화방송시청자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지은 책으로 《텔레비전 화면깨기》 《국민 참여 방송의 이론과 실천》(이상 공저), 《방송공익성에 관한 연구》가 있고, 옮긴 책으로 《언론과 민주주의》(공역) 등이 있다.